

# 대강백 무비스님 대학승 성본스님의 본격 경전 강의 교재출간

불자라면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한다. 원문을 막힘없이 외우는 불자들은 많지만 그 뜻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불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훌륭한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강의를 듣는다. 그러나 문제는 마땅한 교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근 도서출판 민족사에서는 대강백·대학승으로 유명한 무비스님의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와 성본스님의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을 펴냈다. 이 경전강의시리즈는 불자들의 오랜 바람에 부응하여 경전 강의의 맞춤으로 기획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경전의 원문과 독음, 번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원문 옆에는 어려운 한자 풀이를 배치해 옥편이 없어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의 내용을 직접 필기할 수 있는 메모 공간도 충분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강의자와 수강자 모두에게 편리하여 강의 교재용으로 적합하다.

두 경전 모두 한국불교에서는 매우 중시하는 경전으로 우리나라 불자들이라면 그 참뜻을 확실히 알고 실천하여야 한다. 대강백·대학승인 무비스님과 성본스님께서 온전히 담아낸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와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은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보리심을 구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출판 민족사는 앞으로도 불자들이 좋아하는 경전을 골라 경전강의시리즈를 계속 낼 계획이다.

## 대강백 무비스님이 『유마경』에서 찾은 큰 뜻 '생명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의 저자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무비스님은 '유마경은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라고 표현한다. 유마경의 중심인물인 유마거사는 불교의 높은 경지를 체득하고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다. 또 불량한 사람들에게는 훈계를 주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한 분이다.

유마힐은 재가신자(在家信者)의 이상상(理想像)이며 모든 불자의 이상상이다. 세속에 있으면서 불도(佛道)를 실천하고 나아가서 불도를 완성할 수 있음을 실현하는 것이 유마경의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여진다'라는 말을 비롯하여 명인이 아주 많은 경전이

다. 특히 중국에서 널리 읽혔으며 초기 선종(禪宗)에서 매우 중요시되었다.

지금까지 많은 저자들은 유마경의 큰 뜻을 유마힐의 침묵으로 표현되는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두었으나 저자인 무비스님은 오히려 그보다는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 경전 원문·독음·번역·어려운 한자 풀이·넉넉한 필기 공간 수많은 불자들의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출간!

아프다. 생명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산천초목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는 가르침이 유마경의 대의(大義)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교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아파하는 생명들을 외면한다면 그 심오한 교리가 무슨 가치가 있었으며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유마경은

##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승적 삶에서 탈피해 남을 배려하고 세상을 먼저 구제하는 대승보살의 정신을 드러내어 밝힌 가르침을 담고 있다.

유마경은 불교공부를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의 편협하고 치우친 안목을 여지없이 깨트리고, 대승불교의 근본과 줄기들을 총망라하여 불교공부의 진실로 돌아갈 바를 남김없이 제시하고 있다.

## 대학승 성본스님이 『금강경』에서 찾은 긍정의 지혜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사랑 받는 경전이지만, 그 심오함 때문에 많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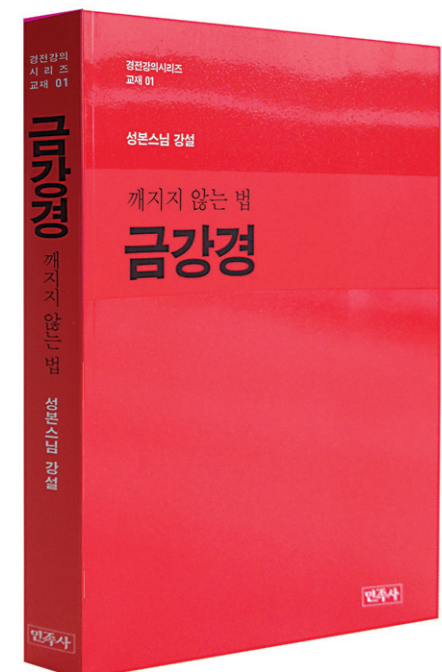
##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들은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의 저자 성본스님은 난해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거리감을 좁혀준다.

금강경을 최상(最上), 제일 희유(第一稀有)한 법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공(空, sunya)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

##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면서도, 아공(我空), 법공(法空), 일체개공(一切皆空)을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이 다른 금강경 해설서와 다른 점은, 난해한 개념을 명확하게 짚어내어, 누구라도 쉽게 금강경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징은 금강경의 개념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대승경전을 꿰뚫어 함께 강의, 해설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다아문드와 같이 파괴되



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끊어버릴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무상하다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매사의 모든 일이 새롭고 신선하고 진실된 생활활동을 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법하게 진실을 알지 못하고 보잘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점과 사유가 부족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원력으로 이루는 긍정의 지혜는 중생을 부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과 무기력의 포기에서 희망과 지혜로운 생활활동을 되살리는 힘이다. 선근 공덕을 이루는 원력의 힘은 중생심의 의식을 불심의 신심으로 전환하게 하며, 불가사의한 지혜인 부처를 이루고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의 회향이 된다.

### ■ 저자 소개

####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성본스님

경남 거창 출신으로 법주사에서 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했으며, 일본 愛知學院大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駒澤大學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철학과 및 중앙승가대학교 강사, 현재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교수 및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선문화연구원(네이버, zenmaster.co.kr)의 문을 두드리면 스님을 만날 수 있다. 역저서로는 「중국의 성립사 연구」, 「선의 역사와 사상」, 「禪佛敎란 무엇인가」, 「선종의 전통설 연구」, 「참선수행」, 「선불교의 이해」, 「간화선의 이론과 실제」, 「도원본 육조단경」, 「법암록」, 「일체록」, 「무문관」 등 다수가 있다.

####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무비스님

부산 범어사에서 여현(如幻)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였으며, 해인사, 통도사 등 여러 선원에서 안거하였다. 이후 오대산 원정사에서 탄하스님을 모시고 경전을 공부했으며, 탄하스님의 법맥을 이은 대강백으로 통도사·범어사 강주,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범어사 한루로 계시면서 많은 집필 활동과 아울러 전국 각지의 법회와 인터넷 카페 열화실에서 불자들을 만나고 있다. 역저서로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한글화엄경」(12권), 「보현행원종 강의」, 「백운스님 어록」, 「나옹스님 어록」, 「금강경 오기해」, 「금강경 강의」 등 다수가 있다. 인터넷 카페 열화실(http://cafe.daum.net/yumhwasil)의 문을 두드리면 시공을 초월하여 스님을 만날 수 있다.

###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피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 사회적 현장을 떠난 불교, 그것은 이미 불교가 아니다!

- 올해의 불서 대상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



불교출판인들의 축제의 현장,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에서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김재영 저, 민족사 펴냄)가 올해의 불서 대상에 선정되었다.

##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불교의 실천적 방향을 초기 불교에서 찾다.

2012년 12월 12일 제9회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의 불서 대상에는 민족사의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김재영 저)이 수상 영광을 안았다.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은 현재 불교계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초기 불교의 전범 개혁과 사회적 변혁 과정을 통찰해 한국불교의 역동적 에너지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김재영 법사는 붓다의 삶이 시종일관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에 의하여 추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 중 심의 접근 방법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이 깨달을 수 있는 주제가 되어 생명력이 넘치는 불교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교리

가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이 문제라고 말한다. 불교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교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석가모니를 비롯한 사부대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불교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교리가 그 중심에 있다. 사람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불교, 불교의 실질적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없는 불교가 무슨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재영 저자는 사람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그 연구의 결과물이 이 책인 것이다.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은 사회적 실천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고,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불교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역사과, 동국대학교(석사), 동방대학원대학교(불교학박사)를 졸업하였다. 교편을 잡고 있던 동덕여고에서 불교학회를 창립해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650여 명을 결집하였고, 청보리 학생회·청년회를 창립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 동방불교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장의 불교, 현장의 불교학'이라는 화두로 새로운 불교운동의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다. 저서로는 「툼비니에서 구시니가라까지」, 「은혜 속의 주인공들」, 「무소의 불처럼 상·하」, 「365일 부처님과 함께」, 「우리도 부처님같이」,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 「초기불교개혁사」, 「붓다의 대중건설운동」,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간다」 등이 있다.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예술원

(공정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합니다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슬레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